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연속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속기도는 3월 22일(월) 0시부터 4월 3일(토) 24시까지입니다.
- 오늘은 공동생활 23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21일(일)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 공동체학교 운영이사회가 오후 3시에 모입니다.
- 교회운영위원회가 오후 3시 30분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11 호

2021년 3월 1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성서 일기를 통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디든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루종일 돌아다니시며 귀신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겁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 또한 밥도 먹지 못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조용한 곳으로 배를 타고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한 가득입니다. 어찌나 빨리 달려왔던지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예수님(막6:34). 마가는 이 때의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순간도 먹지도 쉬지도 못한 예수님과 제자들. 끝내는 저녁때가 되었고, 아마 제자들도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흠어서 저녁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가없다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막6:37) 라며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됩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5000명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말입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은 저물고 이제는 도저히 체력적으로 견딜 수 없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밤새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것이지요.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할 정도면 얼마나 썩 바람이었겠습니까? 강한 바람과 밤새

싸우고 게네사렛 땅에 닳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옵니다. 어디든 병자들이 즐비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얼마나 힘겨웠을까?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사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심히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본문을 통해 발견한 까닭은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 성품이 바로 '공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높아지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공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막 6:46)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홀로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본인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에 대해 더욱 명확히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로 나아가셨던 그 때처럼 홀로 기도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지치고, 힘겹고 나의 것을 많이 희생해야 하고 심지어 아무런 댓가 없이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각자의 기도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휼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주간의 말씀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
<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마가복음 6장 1-29

제목 : 두려움에서 영원으로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장미숙 권사

찬송 : 438 219 210 549 220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6 두려움을 버리자

7-13 경건의 능력

14-29 영원한 것을 취하자

2. 내용의 의미(Why)

- 1) 선입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 2) 예수님께서서는 시대와 지역에 알맞게 파송하셨습니다.
- 3)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1)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 일들, 시간들에 마음을 엽시다.
- 2) 경건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입읍시다.
- 3)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있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공동체(코이노니아) 생활

공동생활의 의미

공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정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 초대교회를 모형으로 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삶 <행2: 42-48, 엠 2:11-22, 4: 1-16>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장기적으로 공동생활과 일시적인 공동체 생활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공동생활이라고 표현한다.

공동생활의 의미는

첫째로, 개인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의 삶을 갖게 한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만을 위해 살며 주기도 대로 보수와 댓가 없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갖는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공동생활을 통해 기독교의 진정한 사귀를 확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쉽게 하나 될 수 없는 다양성, 다양한 지체들의 그러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각각의 고유성, 각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고 연합의 삶을 이루기 위해 지체들간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뢰성, 한 사람의 부족함, 단점, 상처를 보완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관계성, 신비하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일체성을 경험하게 한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해로 서로의 담을 헐고 함께 어울려 정의, 평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살아 있는 메시지가 되어 많은 사람과 교회에 도전과 희망을 준다.

정태일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 중에서 발췌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전도사
설교자 : 정태일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133 : 1-3	인도자
* 예배의 찬송	25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히브리서 9 : 11-12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89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복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마태복음 4 : 1 - 11	설교자
성가대 찬양	154	사랑방
설교	“ 시험, 자기를 부인하는 삶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41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455(3)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이현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를 세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당하는 시험의 문제를 미리 알려주시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시험을 통과하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시험,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1>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처음 삶의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3> 성전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6>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라<9>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믿음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경제(돈)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성공 등 세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의 답,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오늘의 말씀은 문제 제시에 목적이 있지 않고, 문제의 해답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문제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말씀하며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인용된 성경에서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는 말씀에는 일관되게 거부하시는 마음이 깔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답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믿음의 생활과정에서 시험을 통과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믿음에도 돈, 관계, 명예 등의 시험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다음으로 나에게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 즉 희생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십시오.<마16:24-25>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전도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7명의 꾸러기들과 3명의 선생님들이 매우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발을 벗어 정리하는 것,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것, 밥 먹는 것,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거는 것, 자기 물건을 제 자리에 두는 것 등의 일상도 아직은 낯설고 서툰 5살, 꼬끼리반 친구들이 어쩌면 가장 열심히 한 주간을 지냈을 겁니다.

7살, 돌고래반은 한 살 더 나이를 먹은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척척 여유롭게 해내고 동생들을 돌보며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좀 과장하면 숨 실 틈도 없는 것 같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꾸러기들 덕분에 고단함도 거뜰히 물리치고 늘 웃을 수 있습니다.

7살 로운이가 공동체 핏말을 보며 하교 길에 물었습니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 꾸러기학교가 정말 땅에 있는 하늘나라가 맞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꾸러기학교가 하늘나라 맞는 것 같니?”

“예 그런 것 같아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에서는 월~수 여행을 했습니다. 이전같았으면 사삼오오 차를 타고 먼곳에 가서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경험하였지만 코로나-19여서 그렇게 하지 못해 대신 매일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평소와 같이 등교와 하교를 하면서 학교에서 여행을 했음에도 어린이들은 매우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유지를 하면서, 함께 게임도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서로 자기 스스로, 그리고 반별로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의 시간이 길것만 같았는데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 수요일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목요일에는 학교를 이끌어 갈 임원단과 학년장을 뽑았습니다.

회장에 정아인, 총무에 박성현, 서기에 이은찬이 뽑혔습니다. 한해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또 더욱 자라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이 자기소개와 장기자랑의 영상을 보냈고, 선배들은 환영하는 영상 메시지로 답했습니다. 직접 볼 수 없는 것은 아쉬웠지만, 1학년 친구들이 준비한 소개를 보면서 어느새 입꼬리가 살포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CTS의 “마이크 온”이라는 프로그램에 사랑방공동체학교가 참여해 촬영하였고, 멋쟁이학교에서는 현 회장과 전 회장이 출연했습니다. 떨거나 긴장한 기색 없이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했고, 지켜보시는 선생님들과 방송관계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4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온라인수업이지만 공동심화학습은 진행됩니다. 특별히 “밖에서 본 멋쟁이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3-6학년의 이번 공동심화학습 준비기간동안 1-2학년은 “한류”에 대해서 따로 공동심화학습을 하며 공동심화학습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한 멋쟁이학교지만, 외부의 시선에는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 방역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멋쟁이학교가 코로나라는 벽을 넘어 온전한 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돈희 >

참 좋을 나이! 23살!

종로에 있던 교회가 무림리로 이사오며 공동생활이 시작되던 해에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며 바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바로 사랑방공동체 학교 교사로 생활하며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림리에서 지내다가 의정부로 나와서 지내게 된지도 7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랫집, 윗집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긴장되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웬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더 개인적인 삶을 살 거라는 막연한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며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교사를 하며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가정을 만나지만 걱정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나름의 기도제목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고 해결해 나갈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23살이면 참 좋을 나이라는 것을 그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잘 압니다. 그래서 고생도 젊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도 공감이가고, 나이가 무기라는 말도 크게 공감됩니다. 사람이 23살이 될 때까지 걱정과 어려움 없이 크면 좋겠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이겨나가며 성장해야 더 단단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공동생활 23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23살이 되기까지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관심과 기도가 함께 있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공동생활이 이제껏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테지만 그것들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며 지낼 때에 진정한 함께 살아가는 힘을 배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아직 성장기에 있는 공동생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 좋을 나이! 공동생활의 23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이사야서 42:1-4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탈북 여성들>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북한을 떠난 여성들은 국경지역이나 한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탈북여성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들이 전인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프론티어즈>

송강호 활동가님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공동체의 각 위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2) 이번 주일은 공동생활 2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어느덧 3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마당의 산수유가 봄을 맞이하며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이번 주는 공동생활 기념주일로 지냅니다. 벌써 24년째 되는 공동생활 기념주일에 하나님과 사랑방 식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 모두에게 작은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 이곳 저곳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 마음도 기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사랑방공동체 학교 학생 3명과 선생님들이 CTS Mic On 프로그램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대견스럽고 잘 자란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교육목회의 실현을 위해 애쓴 모든 사랑방의 식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오는 방송을 같이 보면서 함께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재훈 전도사 >